

Essay of the CHINAPLAS 2024 Packaging Exposition

## ‘CHINAPLAS 2024’ 포장전시회 참관 기행문

### “국제 시장 동향 파악·산업 발전 전략 강화에 도움”

김혁수 / 우리수출포장 이사



▲ 김혁수 우리수출포장 이사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2024 차이나플러스(CHINAPLAS) 전시회는 많은 정보와 교류가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한국포장협회가 주관한 2024 차이나플러스 박람회에 참관한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홍차오 국제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380,000sqm 면적에 4,420개 업체 참가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포장 산업의 최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하



▲ CHINAPLAS 2024 포장전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HINAPLAS 2024 포장전시회 모습

고 폭넓은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우선 박람회에서 다양한 기계 설비와 포장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는 부스들을 둘러봤다.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부터 생분해성 솔루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

어 있었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포장 솔루션들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 관련 세미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우수한 연사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로봇 기반의 자동 포장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포장 기술 등에 대한 내용들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환경에도 더욱 친화적이다.

포장협회 관계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통해 새로운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나 기업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해보다 29.67% 증가한 32만 1,879명의 발길이 이어져 성황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차이나플러스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국제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친환경, 신소재 등 기술 혁신에 대해 고민하겠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사)포장협회와 관계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중국 현지 업체 공장 탐방 및 즐거운 교류”

이 채 현 / (주)썸웰테크 전무



▲ 이 채 현 (주)썸웰테크 전무

이번 CHINAPLAS 2024는 중국 상하이 훙차오국립전시컨벤션센터 (NECC)에서 개최되었다.

15개 전시장을 모두 활용하였고, 또한 총 38만 평방미터 이상의 전시면적과 전 세계 4천명 이상 업계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시장 트렌드, 신기술 및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아시아 최대의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의 아시아 최대의 행사로 진행됐다.

당사는 국내에서는 에어캡 및 안전 봉투류를, 필리핀에서는 쉬링크필름 및 스트레치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이번 한국참관단에 4명이나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한국포장협회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CHINAPLAS 2024 전시 섹션은 크게 나누어 기기류, 소재, 기기&장비, 소재&보조재로 나눌 수 있다. 워낙 방대한 규모라 이틀간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나름대로 섹션을 나누어 관심 분야를 보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각 섹션 별로 잠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 기기류

3D 기술존, 보조 및 시험 장비 구역, 금형 전용 전시 공간, 압출 기계 구역, 필름 및 플라스틱 포장 기계, 사출 성형 기계 구역,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 및 지능형 제조 기술, 플라스틱 포장 기기 존, 재활용 기술 존, 고무 기기 존

### 소재

첨가제 구역, 바이오플라스틱 구역, 화학물질 및 원료 구역, 컬러 안료 및 마스터배치 구역, 합성 및 고기능성 재료 구역,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고무존, 재생 플라스틱 존

### 기기 & 장비

보조 장비, 취입 성형 기계, 압출기 및 압출 라인, 사출 성형 기계, 통합 자동화, 전처리 및 재활용 기계 및 장비, 마감/장식/인쇄/표시용 기계류 및 설비, 폼/반응성/강화 수지용 기계류, 보조 및 시험 장비 존, 금형, 핫러너, 기타 가공설비, 부속품 및 부품, 후가공 기기, 압축 기기, 용접 기기

### 소재 & 보조제

3D 프린터 자재, 첨가제/접착제 및 충전제, 바이오플라스틱 및 분해성 플라스틱, 코팅용 혼합제, 폼 플라스틱 및 중간물, 컬러 안료 및 마스터배치, 복합소재 및 섬유보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중간 제품, 고무 및 열가소성 탄성체

이번 전시회에서는 유수의 한국 기업들도 참가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LG화학, SK케미칼, 삼양사, 코오롱 ENP 등이다.

특히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테마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였는데 땅에 묻으면 6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소재 COMPOSTFUL™ (PBAT · Poly 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 바이오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PLA · Poly Lactic Acid), 폐플라스틱을 원유 상태로 재활용한 열 분해유 플라스틱, 기계적재활용(PCR · Post Consumer Recycled) 제품 등이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이번 CHINAPLAS 2024에서는 지구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인지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에 관한 제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 당사도 재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재활용 설비업체와 PCR 제품 업체와 만족스러운 상담을 통해 설비 도입 및 재료 수입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번 일정을 통해 LG화학 중국 기술센터의 곽동민 팀장님을 만나 PCR 제품에 대한 제품 특성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틀간의 CHINAPLAS 2024 전시회 참관 일정을 마치고, 이번 한국참관단 약 30여명 분들과 중국 현지 업체(주태기계, 하이썸플렉시블스)의 공장탐방과 더불어 와이탄 유람선 야경 투어, 주가각, 수향마을 등 오랜 만에 중국 상하이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친해질 수 있는 이틀간의 기회를 더 갖게 되어 즐거웠다.

특히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 맛있는 야외 바베큐와 더불어 중국의 53도 전통 백주를 마시며 함께 한 즐거운 저녁식사 자리가 기억에 남아 있다. 이번 4박 5일간 사고 없이 좋은 여정을 함께 한 한국참관단 분들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사)한국포장협회의 오선진 전무님과 우현정 차장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 멀리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저를

보고 싶다고 만나러 찾아와 준 중국 베이징 주재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중국인 친구 친신 마오에게도 15년 만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소중한 시간이었고, 정말 고맙다고 이 지면을 통해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친애하는 친구여 우리의 우정 영원하자



▲ CHINAPLAS 2024 포장전시회 마지막 날 일부 참석자들의 저녁 식사 자리.

## “그라비아 인쇄 · 공장 견학 기억에 남아, 견문 넓히는데 도움”

윤 나 리 / (주)유레코 매니저



▲ 윤나리 (주)유레코 매니저

독일의 K-fair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2024 CHINA PLAS가 이번 상해에서 4월 개최되었다. CHINAPLAS는 1983년도 창립된 이래 아시아 최대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 전시회로 발전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와 회사들이 참석하여 최근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한국포장협회에서 좋은 기회를 제안해주셔서,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여 좋은 분들과함께 다녀올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2개 층, 총 1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섹션별로 국가를 불문하고 다양한 회사들이 미래 산업 동향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자리였다. 처음 참가한 CHINAPLAS이니 만큼, 모든 구역을 심도 깊게 관람할 수는 없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았던 몇몇 구역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 3관, FILM TECH & PLASTIC PACKAGING MACHINERY ZONE

다른 섹션들과는 달리 2개 층 전부를 한 관이 사용하고 있는 3관에서는, 필름 사출기 등 다양한 기계들이 자리해 있었다. 실제로 해당 기계를 시연함으로써 실제 필름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업계 특성 상 기기의 원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 비교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팅을 진행하는 바이어 또한 그러한 점에 주의를 두며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CHINAPLAS 2024 포장전시회 모습

### 2관, YOUNG TECH HALL

2관에서는 다양한 필름 가공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 CHINAPLAS 2024 포장전시회 참석자들이 공장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스는 그라비아 인쇄기를 시연하는 부스였는데, 주위에 여러 훌륭한 업체들의 기계가 많았지만 중국 최초로 SPEED를 80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쇄 품질을 보여주는 시연회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 정도로 매우

독보적이었다. 또한 부스에서 만난 관계자가 현재 시장의 동향뿐만 아니라, 여러 설비기기 업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 덕분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 주태기계 공장 & 하이썸 공장 견학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 관계자들과의 오찬과 함께 협회 방문자들을 환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각각 관람하는 박람회와 달리, 친절하고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각 기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주태기계공장과, 엄청난 규모의 하이썸 공장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특히 하이썸 공장에서는 실제 PE를 생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일정 상 가동 전/후 모습만을 본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러나 실제 가동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새로 설치하고 있는 설비들, 하이썸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의 대략적인 개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공장이 정식 가동될 경우, 시장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이후 상황의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람회 참관 뿐 아니라 주가각 등의 수향마을 방문,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다.

특히 상해의 야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유람선을 타고 관람할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포장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첫 참가라 어색하고 허둥거리던 저희들을 친절하게 해주시고, 챙겨주신 대표님들, 궁금한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신 전무님들, 실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